

June 26, 2016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송 24장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255장(187통)

Prayer 기 도 성기현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삼상3:1-9

Choir 특 송 성가대찬양

Sermon 말 씀 김원기목사

" 아이 사무엘 "

● Prayer 기 도 다같이 Together

● Benediction 축 도 윤종대 원로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30

▣ 교역자 윌레회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시내산 아래의 일 ▣ 본문: 출31:18-32:6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구역장 : 최영애권사 인도 : 윤재은사모
▣ 감자 - 구역장 : 김옥련권사 인도 : 사라돌집사
▣ 무 - 구역장 : 김봉재집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새가족부 인도 : 김원기목사

- 2016년도 표어 "예수님 처럼, 예수님 처럼"(교회 역사 가족)
- 이달에 읽을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 6월달 행사안내
-26일: 교역자 윌레회, 생일파티,
- 6월 가정심방의 달입니다.
-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문의: 성가대총무 성기현장로)
- 이번주 식사 준비는 D구역입니다.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교회대청소: 25-26일(오전8시부터)
#6월 기도제목: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교육부수련회를 위해서
#토요새벽기도: 7월2일 김봉재 권사 7월9일 성승록 권사
7월 16일 장정님 권사 7월23일 김옥련 권사

다음 주일 예배위원

- ▣ 기도 : 1부- 합심기도 •2부- 조홍진장로
-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2부- 황동근집사
-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 원로목사 : 윤종대 ▣ 시무장로 : 김경식 성기현 조홍진
- ▣ 부 목 사 : 이득환 ▣ 협동장로 : 데이빗최, 이화정
- ▣ 교육목사 : 이철주 ▣ 전 도 사 : 황창원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주일헌금 : \$	자녀헌금 :\$
감사헌금 : \$	교육부헌금:\$
선교헌금 : \$	구역헌금 :\$
지난주일 합계 : \$	

사사기16:23-31 사사로 이십년을 지냈더라

삿13장 4, 5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의 뜻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별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라면서 나실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착각 내지는 교만...사사기 16:17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이때까지도 자신을 '나실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가 '나실인'입니까?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기록에 의하면 잔치와 유흥을 즐긴 사람입니다. 또한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려면 가까이 하지도 말았어야 할 이방여인과 결혼하였고 기생과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죽은 사자 시체에서 꿀을 보고 손으로 만져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퍼서 부모님께 갖다가 드렸습니다. 오직 그가 잘 지킨 것은 하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아직도 나실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안 지키고 오직 머리만 안 잘랐다는 이유로 말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그의 힘이 나왔다는 것은 삼손의 말입니다.

14:6절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열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4:19절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곳 사람 삼십 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풀 자들에게 웃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15:14절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라고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말의 의해서 그의 힘이 머리카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나실인이라는 구약의 히브리적인 사고를 신약의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16-17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공통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나실인은 예수를 영접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출애굽기30장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드릴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붙이게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제사를 드릴때마다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후손들에게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이 되어 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기위해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나실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